

기독교세계관과 보건의료학문: 기초와 실천

김태호 (대구대학교)

김지원교수님의 “기독교세계관과 보건의료학문:기초와 실천” 논문은 보건의료분야에 있는 교육가와 임상가들에 많은 고민을 던져주는 논문이며,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그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앞으로 진지하게 모색하게끔 하는 논문입니다.

연구자는 보건의료분야의 기독교세계관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창조-타락-구속-완성으로 이어지는 논리적 흐름을 구성하고, 각각의 개념과 의미를 잘 설명하였습니다.

“창조”에서는 창조 당시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 이웃, 나의 영과 육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상태를 의미하며, 건강의 측면에서는 온전한 건강한 상태를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 즉,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보다 의미 있게 표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타락”은 인간이 원죄에 의해 창조시의 완전함에서 벗어나, 불안정한 인간이 된 것이고, 원죄에서 잉태된 사회적, 환경적 문제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이 악화되는 상태로 보았습니다. 연구자는 이전의 연구에서 질병의 상태를 “자신이나 타인 또는 자연,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분리가 초래한 육체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을 포함하는 부조화, 무질서, 불균형의 상태”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시작이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의 변질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인은 자신의 사역현장에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변질되고 왜곡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는 시야를 개발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가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타락”의 개념에서 문제점을 찾아내어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기독교적 신앙의 가치관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신체전체적인 면에서 철저히 하여 확실한 문제점을 찾아내 진단을 내려야 올바른 치료가 되듯이, “타락”의 개념이라는 평가의 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부단히 영적훈련과 성경교육을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구속”의 의미를 연구자의 다른 연구에서 이미 보건의료전문가는 의학적 처치 뿐만 아니라 기독교 영성에 근거한 영적 돌봄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개념은 치료 뿐만이 아니라 연구와 교육에서도 왜곡된 점들을 찾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완성”이란 그리스도의 성품과 존재를 하나님과 나, 이웃과 나, 나자신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어가는 능력인 영성을 회복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이 땅에서는 질병은 피할 수 없으며, 완전한 건강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알아야 하고, 기독교보건의료인이 인간의 능력과 지식으로 질병을 온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속”과 “완성”은 치료의 의미로 받아 들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의학적 치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성

회복을 통한 하나님과의 소통까지 다다를 때 진정한 의미의 치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 모델을 보건의료분야에 적용할 때 여러 가지 사역들이 창조-타락-구속-완성으로 이어지는 모델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파악하고 각자의 사역분야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교육·연구·치료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분야에서는 교육과정에 기독교세계관을 반영하고 근거한 학과목을 개발해야 하는데, 간호학에서 '기독교세계관과 영적건강', 물리치료학에서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물리치료윤리'가 그 예로 제시되었으며, 그와 더불어 기독교대학에서는 보건의료학과가 있다면 교육과정과 비전을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해서 제시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구분야에서는 해부생리학, 병리학, 임상의학, 간호학 등의 예를 통해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연구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치료분야는 질병의 치료에 대해서 증상을 치료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치료접근을 통해 병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구원사역을 하는 분야라고 하였습니다.

김지원교수님의 이 연구를 통해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교육·연구·치료 분야에서 어떠한 관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육할 것인가 또한 어떻게 환자를 대하면서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과제를 우리에게 제시해주었습니다. 학자로서 조금 알고 있는 알팍한 전문지식이 전부인 양 학생들에게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해 주었던 저로서는 마음의 찢림을 받으며, 제가 감당해야 할 사역을 다시금 일깨워준 소중한 연구였습니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보건의료의 각 분야에서 구체적 성공사례를 통해 기독교적 보건의료학문의 초석을 제시해 주시길 기대합니다.